

낭만과 모험을 실은 암트랙

미국 대륙횡단 여행

암트랙 사우스웨스트 치프 노선의 종착역인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대륙횡단 여행

미국은 '배낭여행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볼거리들이 곳곳에 널려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보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 가이드북은 미국을 일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렌트를 권한다. 하지만 자동차를 렌트해 이동하면 차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 물론 기동력이 높아져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고 시간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지만, 현지인들과 만나는 기회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필자도 미국 대륙횡단 여행을 계획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 북미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그레이하운드 Greyhound를 이용할 것인가, 전미 간선 철도망인 암트랙 Amtrak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렌트할 것인가. 하지만 그레이하운드를 이용하더라도 일단 버스에 탑승하고 나면 한 자리에 고정되는 반면, 기차에선 객실과 휴게실을 자유롭게 오가며 현지인이나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더는 고민할 게 없었다. 암트랙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1주일 동안 암

트랙을 이용해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등 동부지역을 여행한 다음, 워싱턴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시카고까지 18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시카고에 4일간 머물며 인근을 돌아본 다음 다시 암트랙을 타고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로 이동했다. 30시간이 걸렸고, 기차 안에서 네 끼를 먹었다. 플래그스태프를 기점으로 그랜드캐니언과 후버댐, 라스베이거스를 신나게 돌아다닌 다음, 다시 야간열차를 타고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했다. 총 이동 거리가 4,500km, 기차에서 보낸 시간만 60시간에 달했다. 육중한 철마는 가도 가도 끝없는 중부 대평원과 로키산맥~콜로라도 고원, 뉴멕시코 주의 거칠고 황량한 사막지대를 거침없이 달렸다.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말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대륙을 질주하는 듯한 낭만과 모험의 여정이었다. 핏빛 노을을 던지며 평원 끝으로 넘어가는 석양에 낮을 빼앗기고 감상에 젖는가 하면, 다음날 반대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벽찬 가슴으로 맞았다.

시카고에서 열차에 오르면서 시작된 중부 대평원은 다음날 오전까지 20시간 동안 이어졌고, 콜로라도 고원을 3시간에 걸쳐 힘겹게 넘었다. 뉴멕시코 주와 애리조나 주로 넘어가자 거칠고 황량한 황무지가 작렬하는 태양의 세례를 받으며 뜨겁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야자수가 가로수가 태평양의 미풍에 몸을 흔드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대륙횡단을 마쳤다는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암트랙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필자는 미국을 동에서 서로 연결하는 암트랙의 여러 노선 중 시카고에서 캔자스시티, 콜로라도 주의 라훈타, 뉴멕시코 주의 앨버커키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연결되는 사우스웨스트 치프 노선을 이용했다. 다른 동~서 횡단 루트를 소개하면, 캐나다와의 국경 아래 미국 북부의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엠파이어 빌더 노선이 있고, 덴버를 거쳐 로키산맥을 넘고 솔트레이크시티 등 중부 주요 도시를 거치는 캘리포니아 제퍼 노선이 있다. 모두 시카고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하는데, 각각 거치는 지역과 도시가 달라 독특한 풍광과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미국 동부와 시카고를 연결하는 노선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이와 별도로 동남쪽 끝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에서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를 거쳐 텍사스 주의 휴스턴과 엘 파소, 애리조나 주의 투산, 로스앤젤레스까지 멕시코 접경 위쪽의 미국 남부 주요 도시를 거치는 섀넬 리미티드 노선이 있다. 올랜도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가 48시간, 여기에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올랜도까지 걸리는 20~30시간을 합하면 기차 탑승 시간만 70~80시간이 걸린다. 미국에는 유럽의 유레일패스와 비슷한 USA 레일패스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대륙횡단 여행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USA 레일패스엔 15일 동안 8개 구간segment을 여행할 수 있는 15일 패스, 30일 동안 12개 구간을 여행할 수 있는 30일 패스, 45일 동안 18개 구간을 여행할 수 있는 45일 패스 등 세 가지가 있다. 가격은 각각 459달러, 689달러, 899달러다. 구간이란 거리와 무관하게 열차에 탑승하는 횟수를 말한다. 중간에 내려 관심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암트랙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다.



암트랙 열차. 대륙을 거침없이 질주할 것 같은 육중한 힘이 느껴진다.



미국 사회의 축소판, 암트랙의 참맛

암트랙을 이용해 미 대륙을 횡단하는 것은 단지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연을 감상하고, 중간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광을 바라보고, 기차에 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반추하는 여정이며, 성찰의 시간이다.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아니며,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아니다. 광활한 대지를 질주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여유와 함께 잃어버렸던 자신의 참모습을 되찾게 해주고, 실의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곳이다. 광야를 달렸던 인디언과 서부 개척자들의 모험과 도전, 그들의 용기를 여행자의 마음에 되살아나게 해준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길한 상상력의 산물인 마음의 불안을 버리고, 이 철마와 같이 앞으로 나가도록 힘을 준다.

암트랙 여행의 최대 묘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필자도 뉴멕시코 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중년 부부, 앨버커키의 미술 교사, 일리노이 주 옥수수 생산자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주고 받았다. 50대 초반의 미술 교사와는 콜로라도 고원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거의 네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여행과 삶, 예술과 사회,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어가 유창하고 어눌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서먹하지만 말문을 트고 마음을 열자 암트랙에 탄 승객들은 모두 '내가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되었다. 암트랙은 미국 사회의 축소판이자 하나의 작은 세계였다. 빙음을 내며 대지를 가르느 육중한 철마는 미국을 닮았고, 거기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이 춤을 추는 미국 사회를 닮았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자연이 미국의 걸모습이라면 사람과의 대화는 각자 스토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세계에 배낭여행자의 무덤은 없었다.



휴게실. 천장에도 유리 설치해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 편리하도록 했다.